

같이 보기

: 소통N공감

국내 대중문화의 한 축이었던 'K(코리아)-웹툰'이 마블의 아성에 도전하는 신한류로 주목받고 있다. 참신한 소재와 촘촘한 전개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는 K-웹툰의 '성공 신화'와 길러 콘텐츠로 다각화되고 있는 웹툰 IP를 자세히 살펴본다.

글 편집실

경이로운 K-웹툰



신한류 주역으로 나선 K-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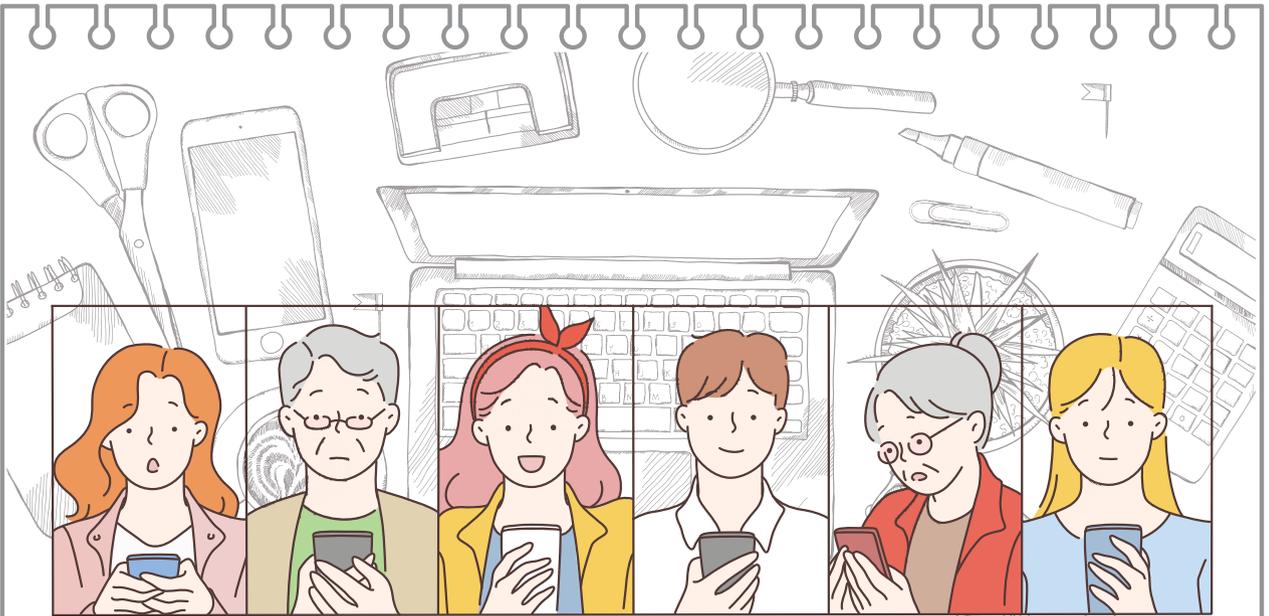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웹툰 캐릭터가 그려진 방역용 마스크를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가 진행된 이날은 '만화의 날'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기 웹툰 <TEN>의 캐릭터가 그려진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며 "만화강국 일본 웹툰 시장에서 한국 웹툰이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웹툰은 이제 K-콘텐츠를 대표하는 장르로 신한류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내 웹툰 산업은 호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15년 4,200억 원에서 2020년 1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는 집콕 생활의 일상화로 K-웹툰의 저력을 입증한 한해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웹툰을 포함한 만화 산업 상반기 수출액은 2,267만 달러(약 264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12.8% 늘었다.

국내 웹툰은 전 세계 시장점유율의 약 28%로 추산된다. 이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끈 일등 공신은 대형 플랫폼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등이다. 이들 회사는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수익모델을 탄탄히 구축했다.

먼저 2014년 7월, 미국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네이버웹툰은 웹툰 산업 성장을 이끌어 오며 현재 프랑스, 대만 등 100여 개국에서 구글플레이 만화앱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앱애니 시장조사 업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월간 페이지뷰는 105억뷰다.

카카오 역시 글로벌 웹툰 시장을 공략 중이다. 카카오는 2019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 대만, 태국 웹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북미 진출을 위한 발판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다.



K-웹툰 영상화 인기몰이 올해도 계속

몇 년 사이 웹툰 기반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영화나 드라마로 재탄생되고 잇따라 흥행하면서 관련 시장의 규모도 나날이 확장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웹툰 < 스위트홈 >은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 4일 만에 한국 포함 태국, 쿠웨이트 총 11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세계 70여 개국에서 Top 10에 들었고 미국에서는 한국 콘텐츠 최초로 3위까지 랭크되는 기록을 세웠다.

웹툰의 지식재산권(IP) 영상화는 < 스위트홈 >뿐만이 아니다. 웹툰 IP 기반으로 제작된 드라마는 무려 80여 편에 달한다. 2014년 < 미생 >, 2018년 < 김비서가 왜 그럴까 >, 2019년 < 타인은 지옥이다 >, 2020년 < 여신강림 >, < 경이로운 소문 >, < 이태원클라쓰 > 등이 인기리에 방영됐다.

웹툰 IP 기반의 흥행 영화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윤태호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

화 < 이끼 >는 300만 관객을 기록했으며, 2012년 < 26년 >, 2013년 < 은밀하게 위대하게 >가 각각 296만 명, 695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2017년과 2018년에는 < 신과 함께 >, 1, 2가 각각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대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올해에는 더 다양한 웹툰 IP 기반 영상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학원 좀비물 웹툰 < 지금 우리 학교는 >과 영화 < 부산행 > 연상호 감독과 웹툰 < 송곳 > 최규석 작가가 함께 선보이는 웹툰 < 지옥 > 등이 영상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해 누적 조회수 32억부를 기록하며 5년간의 연재를 마친 < 유미의 세포들 > 또한 드라마화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더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웹툰 IP 영상화를 기반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을 구상하면서 K-웹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